

“더 얇고 빠르게”… 삼성·LG ‘유리기판’ 미래사업 속도전

시장규모 79억弗→4년내 108억弗

삼성전기 세중에 생산라인 구축
2027년 상용화 목표 삼성전자 협력

LG이노텍 구미에 파일럿라인 구축
AI서버용 고밀도 패키징 시장 겨냥



삼성전기 수원사업장 전경.

/ 삼성전기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유리기판이 부품업계의 차세대 성장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삼성전기와 LG이노텍 등 주요 부품사들의 수장들 역시 유리기판 시장의 개화 시점을 거론하며 관련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분위기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유리기판 시장은 지난해 79억달러 규모에서 오는 2029년 108억 5000만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간성장률은 6.6%로 추산된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계열 반도체 패키지 기판을 유리 재질로 대체한 것으로, 얇고 표면이 매끄러워 미세 회로 구현 시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반도체 패

키지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높이고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어 고성능 AI칩을 중심으로 차세대 패키징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 기업들도 유리기판 사업 준비에 한창이다. 삼성전기는 세종사업장에 유리 기판 시범생산 라인 구축을 완료하고 가동에 들어갔다. 일본 스미토모화학그룹과 유리기판의 핵심소재인 글라스 코어 제조를 위한 합작법인(JV) 설

립도 추진 중이다. 글라스코어 생산 거점지는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 평택사업장으로 결정됐다.

또한 삼성전기는 모회사이자 고객사인 삼성전자와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 삼성전기는 2027~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삼성전자와 협력해 AI 및 서버용 반도체 패키지에 유리기판을 적용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계열사 간 협업을 통해 초기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만큼

경쟁사 대비 투자 부담을 상대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장덕현 삼성전기 대표는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본격적인 유리 기판 시장은 오는 2027년~2028년 열릴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LG이노텍도 유리기판 사업을 겨냥해 R&D 강화와 파일럿 라인 구축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회사는 지난해 3월 주주총회를 통해 유리 기판 사업 진출을 공식화했으며 최고기술책임자(CTO) 산하 R&D 조직에서 개발을 진행 중이다.

LG이노텍은 지난 1분기 구미사업장에 유리기판 파일럿 라인을 구축했고 2027년~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유리 인터포저보다 기술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유리 코어 기판을 우선 개발해 사업 리스크를 줄이면서 AI서버용 고밀도 패키징 시장을 겨냥하는 전략을 채택했다.

최근 LG이노텍의 수장인 문혁수 대표는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하며 반

도체 기판 사업을 회사의 미래 성장축으로 육성하겠다는 기조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그는 지난 3월 주주총회 후 “유리 기판은 2~3년 후에는 통신용 반도체에서, 5년 뒤에는 서버용에서도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가야만 하는 방향”이라며 “올해 말 유리 기판 시제품 생산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으며 글로벌 고객사 대상 프로모션도 활발히 추진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AI와 빅데이터 처리 수요가 늘면서 반도체 기판은 대형화가 불가피한데, 크기가 커질수록 휘거나 발열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며 “유리 코어 기판은 이런 구조적 한계를 잡아줄 수 있는 대안으로 기판의 평탄성과 열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 난도가 높은 만큼 아직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지 않았지만, 주요 부품 기업들이 실제 양산을 염두에 두고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위메프 이어 인터파크커머스로 결국 파산

法, 회생절차 폐지 보름만에 선고
내년 2월20일까지 채권신고해야

법원이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큐텐그룹 계열사 위메프에 이어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서도 파산을 선고했다. 1년 넘게 인수자를 찾지 못하며 회생을 모색했으나 끝내 무산되면서 청산 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정준영)는 16일 오전 11시 10분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 1일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진 지 보름 만이다. 법원은 파산 절차를 주관하고 채권자 배당 등을 담당할 파산관재인으로 이호천 변호사를 선임했다.

재판부는 파산 선고와 함께 향후 일정을 확정했다. 채권자들은 내년 2월 20일까지 채권을 신고해야 하며, 내년 3월 17일에는 서울회생법원에서 채권자 집회와 채권 조사가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채권액 확정과 향후 영업 폐지 혹은 지속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인터파크커머스의 파산은 예정된 수준이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일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다”며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이 정한 기한인 지난달 13일까지 회생계획안이 제출되지 않았고, 결정적으로 1년 가까이 새 주인을 찾는 인수합병(M&A)에 실패한 것이 주원인이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인터파크쇼핑과 A·K몰 등을 운영해 온 큐텐그룹의 계열사다. 지난해 7월 티몬과 위메프에서 시작된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티메프 사태)의 여파로 판매자와 소비자가 이탈하며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렸고, 결국 그해 8월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번 선고로 ‘티메프 사태’의 당사자인 큐텐 계열사 3곳의 운명은 극명하게 갈렸다.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에 인수된 후 채무 대부분을 변제하며 회생 절차를 종결하고 생존에 성공했다. 반면, 위메프는 지난달 10일 파산 선고를 받았고, 인터파크커머스 역시 이날 파산이 확정되며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손종국 기자 handbell@

韓·英 FTA 개선협상… 車 관세혜택 확대

산업부, 韓 수출품 원산지기준 완화
K-뷰티·푸드 무관세 적용범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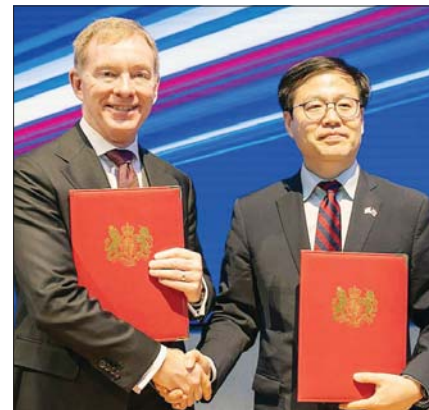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이 타결됐다. 자동차와 K-푸드 등 우리 주력 수출품의 원산지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공급망 안정화 협력을 구체화하는 한편, 다양한 분야 교류와 협력 확대를 위한 신통상규범도 다수 반영됐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크리스 브라이언트(Chris Bryant) 영국 산업통상부 통상담당장관과 한·영 FTA 개선협상 타결을 확인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16일 밝혔다.

한·영 양국은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이후 교역·투자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1년 한·영 FTA를 우선발효했다. 이후 협정 발효 2년 내 후속협상을 추진하도록 한 원협정 조항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총 6차례 개선협상과 5차례 통상장관회담을 거쳐 이번에 타결에 이르렀다.

이번 개정으로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의 원산지 기준이 완화됐다. 대영 수출의 36%를 차지하는 자동차(관세 10%)는 무관세 당사국 부가가치 기준이 기존 55%에서 25%로 낮아진다.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핵심광물 가격 변동에 따른 부담이 컸던 만큼, 관세 혜택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K-뷰티·K-푸드도 문턱이 낮아졌다. 화장품 등 화학제품(관세 최대 8%)은 당사국에서 화학반응·정제·혼합·배합 공정을 수행하면 무관세가 적용된다. 만두·떡볶이·김밥·김치 등 가공식품(관세 최대 30%)은 원재료 역내산 요건이 삭제돼, 제3국 원료를 활용하더라도 국내 최종 생산 시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1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크리스 브라이언트(Chris Bryant) 영국 산업통상부 통상담당장관과 한·영 FTA 개선 협상을 타결하고 이를 확인하는 공동선언문 서명식을 가졌다. /산업부

정부조달 분야에서는 영국 고속철시장을 추가 개방해 기존의 비대칭을 시정했다. 서비스 시장에서는 우리 기업 경쟁력이 있는 온라인 게임을 포함해 AI 등 신기술 기반 신서비스를 개방, 우리 기업의 영국 진출에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다.

영국 진출 기업의 인력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비자제도 개선도 담겼다. 제조공장 설립 초기 엔지니어·설비 유지 보수 인력의 수월한 입국을 보장하고, 영어 능력 요건이 없는 비자 타입 활용을 가능하도록 했다. 협력업체 인력의 서비스 계약을 통한 파견도 허용된다. 바이오·IT 분야 전문인력의 입국·체류 절차 역시 간소화된다.

영국과의 양자 FTA 최초로 서비스·디지털 챕터에 시청각 서비스를 적용해 양국 문화콘텐츠 보호 규범을 확립한 것도 주요 성과다. 양국은 기존 문화협력 의정서를 개정해 강화된 재정 지원 등이 포함된 현대화된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콘텐츠 강국인 양국의 제작자 간 공동제작 활성화와 K-콘텐츠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친환경’ SMR 추진선 기술주도권 잡는다

조선업계 ‘차세대 노형’ 개발 로드맵

탈탄소 규제가 선박 연료 지형을 흔들면서 소형모듈원자로(SMR) 추진선이 친환경 선박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용융염원자로(MSR) 기반 원자력 추진선을 놓고 정부와 조선·원자력 업계가 개념설계와 사업모델 검증에 나서며 기술 주도권 확보를 모색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해양 원자력 세미나’에서 해양 SMR 비즈니스 모델을 공개했다. 1만 5000TEU급 컨테이너선과 17만 4000㎥급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에 100 MWth급 MSR를 적용하는 구상이다. 이 가운데 MSR 추진 LNG운반선 개념설계는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미

국선급협회(ABS)·라이베리아 기국이 참여한 공동개발(JDP)로 추진돼 지난해 9월 ABS와 라이베리아 기국으로부터 기본 승인(AiP)을 획득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 2월 미국 휴스턴 ‘해양 원자력 서밋’에서 SMR 기술을 적용한 1만 5000TEU급 원자력 추진 컨테이너선 개념 설계 모델을 공개했다. 해당 설계는 MSR을 염두에 둔 개념 설계로 ABS로부터 AiP를 받았으며 초임계 이산화탄소 기반 추진 시스템과 방사선 차폐 설계를 적용했다.

MSR은 SMR급 MSR 노형으로, 경수로(PWR)와 달리 고체 연료봉이 아닌 우라늄-용융염 혼합 액체연료를 사용하며 상압(약 0.1~0.2MPa) 조건에서 600℃ 이상 고온 운전이 가능하다. 고압 증기 폭발 위험이 구조적으로 낮고, 고온 열원을 활용해 탄소비용이 부과되는

환경에서 효율·비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평가다. 또한 20~30년 설계수명 동안 재급유 없이 운항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조사업체 맥시마이즈마켓리서치는 글로벌 MSR시장은 지난 2023년 177억 1000만 달러에서 오는 2030년 415억 5000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연평균 성장률 12.95%). 한국은 KAERI를 중심으로 원전기술을 개발 중이며, KAERI·삼성중공업은 지난 2023년부터 정부사업 주관기관으로 참여해 내년 해양용 MSR 개념설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SMR 분야에 오는 2030년까지 약 1조 2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국내 연구는 초기 운전 조건 검증 단계로, 지난해 5월 한국원자력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에서 연료 주입 전 접촉면 590℃ 예열을 전제로 과도 열해석을 수행해 열 동결 방지와 히터 용량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